

사람이 사망하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됩니다.  
정신은 하늘로 올라가 혼(魂)이 되고,  
육체는 땅속에 묻혀 백(魄)이 됩니다.

향을 3개 피워 향로에 꽂게 되면 향 연기를 맡고 하늘에서 혼(정신)이 내려옵니다.  
조상신이 오시기를 청하는 강신주 반잔을 향로에 3번 돌린 후 3번에 나누어  
모사기에 부어주면 술 향기를 맡은 백(육체)이 올라옵니다.  
혼과 백이 만나 조상신이 되어 신위에 깃들게 됩니다.

